

“재난종합상황실, 세계最高를 목표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난종합상황실 방문

경기도 재난종합상황실이 통합합과 무선통신망 업그레이드로 한층 강화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월23일 수원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경기도재난종합상황실 통합구축 시연회와 현관식을 갖고 경기도방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종합상황실은 기존의 재난상황실, 민방위경보보통제소,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을 하나로 통합 강화한 것.

경기도는 각종 자연 및 인적재난 사고 발생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사는 가상의 재난현장을 영상과 통합지휘무선망으로 연결해 다자간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작전지휘통제를 성공적으로 시연

했다.

또한 김지사는 수해에 대비해 도내 하천의 수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CCTV의 작동 여부와 선명한 화질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지사는 “재난본부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24시간 깨어있는 조직이기에 모든 시스템을 이곳 종합상황실로 집중시키라”며 “국가 전체적 위기는 군이 맡지만 나머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는 대부분 소방대원들의 몫인 만큼 세계최고의 재난상황실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지사는 “제가 119 홍보대사 격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크고, 시민들도 물론이나 노인 위험상황 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월23일 수원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경기도재난종합상황실 통합구축 시연회와 현관식을 갖고 경기도방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처에서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활동해 주시는 수호천사 여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저소득층 돕기 ‘사랑의 감자’ 수확

의정부시 송산1동 ‘사랑과 김장 나눔사업’



의정부시 송산1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사랑의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의정부시 송산1동에서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심은 감자를 수확하는 첫 번째 결실을 얻었다.

7월18일 수확한 감자는 지난 봄 자생단체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곡동 624-1번지 3천여㎡의 규모에 파종한 것으로 올해는 감자 250박스를 수확했다.

지난 5월 공판에 수익금과 김

자 판매 수익금으로 김장용 배추와 무 등을 파종해 오는 11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해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200여세대에 김장을 담아 전달 할 예정이다.

올해 다섯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많은 단체회원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통장협의회 김장분 부회장은 “따가운 햇살에 얼굴이 그을리고 온 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한편, 정성산 송산1동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휴경지를 활용, 김장을 담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중복 맞아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대접

의정부시 송산1동 건영아파트부녀회

의정부시 송산1동 건영아파트부녀회는 25일 중복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초청, 점심식사로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다.

통에 따르면 지난 25일 실시된 이번 행사는 건영아파트부녀회가 주관해 중복을 맞아 더위에 지치지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것.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누구나 가슴 깊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으나 이렇게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 여러단체 등에서 매년 고마운 행사를 하고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건영아파트부녀회 회원들은 수시로 경로당에 쌀과 밀반찬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해마다 복날이 다가오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송산1동 건영아파트부녀회는 25일 중복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초청, 점심식사로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다.

“할머니 많이 드시고 시원한 여름 나세요”라며 송산1동 건영아파트 김미자 부회장은 식사하시는 어르신 한분 한분과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더운 날씨에 합들지 않는 질문에는 즐겁고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매일 이렇게 대접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권익향상과 다문화사회 형성 서비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 가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25일 오후시 의정부2동에 소재한 센터 5층 강당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들어갔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경기북부지역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권익향상과 다문화사회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하게되며, 베트남, 몽

골, 태국 등 10개국의 통역실무자가 고충처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통역서비스를 해 준다.

또 한국어, 컴퓨터, 생활법률, 직능개발교육 등 교육사업과 다문화체험, 미술, 음악, 춤, 태권도 교실, 영화관람 등 문화·복지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경기북부지역 외국인근로자의 다양한 문화욕구 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6개층 1221.2㎡에 다목적전시실, 북카페, 알뜰매장, 체력단련실, 음악연습실, 노래방, 원터, 하늘공원, 아이휴게실 등 종합지원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청소년 안보현장 및 자연환경 체험행사

의정부시 자금동, 공무방 학생들 대상으로



의정부시 자금동은 여름방학을 맞아 내내 전하리공무방 청소년 400명과 함께 안보현장 및 자연환경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의정부시 자금동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전하리공무방 청소년 40여명과 함께 안보현장 및 자연환경 체험 행사를 가졌다. 7월24일 일찍 출발한 청소년들은 백마고지에 도착, 6·25 전쟁 당시 아군과 적군 수 만명이 희생하였고 열흘간 무려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을 정도로 치열한 격전지였다는 안내 장병의 설명을 들으면서 위령탑 앞에서 말없이 고개 속에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어 고석정의 철의 삼각지 전적 기념관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되새겼다.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한탄강 물줄기가 만들어 놓은 주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에 빠져 나무 한 그루, 지나

가는 작은 동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날 참석한 최민성(초고 6년)학생은 “전쟁에 대해서 TV나 이야기로 들긴 했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직접 백마고지에서 전쟁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기념관도 보니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어디에서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주민자치위원회 강봉구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우리나라를 잘 지켜낸 결과로서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같이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며 “다른 공무방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체험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박물관 미술관 운영개선 토론회

7월2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물관 미술관 운영개선 토론회가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회를 주재하고 있다.



아름다운 도자 특별전 오픈식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월21일 전안 야우리 백화점 3층 특별전시장에서 개최된 아름다운 도자특별전 오픈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참여학생 주요시설 견학

의정부시, 우리고장의 문화·체육시설 체험

의정부시는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마무리 하면서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7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된 시설견학은 직통근린공원과 정보도서관, 의회, 자원회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과학도서관, 재활용선별장, 종합운동장, 실내빙상경기장, 예술의전당 등에 대한 시설견학을 하였다.

시설견학을 통해 지역과 시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고장의 문화·체육 시설을 체험하는 지역현장 학습의 기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짧았지만 소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함께



의정부시는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마무리 하면서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나누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현장 토론을 자유롭게 유도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 시정에 반영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준 대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이번 시설견학을 통해 더욱 더 시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사회 중심재활시설 자리매김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3주년 기념행사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7월24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3주년 기념식에 참석, 지역사회 중심재활 시설로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한 이용객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은 7월24일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 3주년을 맞아 복지관 3층 강당

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 3주년을 맞아 복지관 3층 강당 관 행사를 가졌다.

축하행사로 발레공연과 의정부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직업적응 훈련생의 풍물공연, 청소년 멘토링 공연 등이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특히 이용객을 위한 열광사진 및 인포부부 사진 시상 캠페인도 있었다.

그 외에도 부대행사로 토퍼러리 사진전, 이용객 열광사진 및 인포부부 사진전이 함께 펼쳐지고, 이어서 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수를 가졌다.

한편,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중심재활 시설로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한 이용객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UN군·전몰용사 추모식

대한민국 육탄용사호국정신선양회 주최

대한민국 육탄용사호국정신선양회는 7월20일 연천군 증면 태풍전망대육탄용사총용탑에서 6.25마지막 지누인 베티고지의 승리를 기념하고 육탄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UN군·전몰용사 추모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호국전적비 추모사업회와 UN참전국 전우연합회에서 주관해 실시된 이날 추모식은 매년 7월 중순경 베티고지의 승리를 기념하는 추모행사로 80년부터 비무장지대인 베티고지전적비(25사단수색대 지역)에서 실시했으나

1990년 7월부터 현 태풍전망대에 육탄35용사총용탑 건립하면서부터 이곳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류종열 의정부보훈지청장은 “조국수호를 위하여 일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민족의 제단에 신명을 바친 전몰용사의 명복을 빌고, 타국 땅에서 우리나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산화하신 UN참전국 전몰호국 용사의 거룩한 희생을



7월20일 연천군 증면 태풍전망대육탄용사총용탑에서 육탄용사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개최했다.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㉞ 승무, 살풀이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

승무, 살풀이춤은 1991년10월 19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승무는 승복을 입고 추는 춤이다. 중춤이라 하나 불교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승려춤이나 살풀이춤, 궁중무용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형태로 한말(韓末)을 전후하여 광대나 기생들이 추는 춤이 되었다.

웃치림을 보면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백옥 같은 고깔과 버선코가 유난히 돋보인다. 소매 자락을 뿌리는 동작이나 휘날리게 하는 팔 동작이 특징이다. 살풀이춤이란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해의 나쁜 운을 풀기 위해 굿판을 벌였는데 그곳에서 무당이 신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추던 춤을 말한다. 후에 광대나 기생들에 의해 교방 예술로 발전하였다. 고운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 치마저고리를 입으며 흰

수건을 들고 ‘살풀이’라는 남도 무악장단에 맞추어 춘다.

승무는 한말(韓末)을 전후하여 창우(倡優)나 기녀(妓女) 등 기방 예술인들이 추던 춤으로, 사찰에서 행하는 승려 무용, 살풀이춤이나 또는 궁중무, 탈춤의 장삼춤에서 영향을 받아 교방 예술로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된 춤사위가 살풀이춤과 유사하며, 춤의 형태도 완벽한 독무(獨舞)로 추어진다.

이러한 승무의 전승자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승무’의 기능 보유자인 한영숙과 이매방이 있다. 한영숙(작고)의 춤은 한성준계의 승무이고, 이매방의 춤은 호남 지역에서 추어온 이매조계의 호남승무이다.

한편 승무와 함께 지정된 살풀이춤은 무속 음악 가운데 ‘살

풀이’라는 남도 무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원래 무당들이 신 내리기 수단으로 행했던 춤인데, 후에 광대나 기생들에 의해 교방 예술로 발전하여 춤의 내용이 한층 예술적으로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기법과 형식으로 개성 발전되고 있다. 살풀이춤은 고운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 저고리와 치마에 버선, 그리고 웃고름이 늘어진 복장에 다 흰 수건을 가지고 추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담당